

싸늘하게 식은 이차전자...포스코·에코프로 시총 20조 증발

최근 한달새...테슬라 전기차 판매 부진 등 악재에 추가 하락 '반도체의 봄' 삼성·SK그룹 72조원·17조원 늘어 희비 교차

이차전자 업황이 악화하면서 국내 증시의 이차전자 대표주자인 포스코그룹과 에코프로그룹 시가총액이 한 달 새 20조원 이상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총감소와 업황 악화 등으로 이차전지를 향한 지역 '개미'들의 관심도 감소했다.

7일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포스코그룹 계열 상장사 6곳의 합산 시가총액은 72조1929억원으로, 지난달 4일 84조2343억원에 비해 12조414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에코프로그룹 시총은 지난달 56조6502억원에서 48조4839억원으로 급감했다.

이 기간 두 그룹의 시가총액 감소액은 20조2077억원에 달한다.

전기차 업계에 악재가 잇따르면서 이차전자 관련주가 연일 약세를 보인 탓으로 풀이된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올해 1분기 판매량은 38만7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다. 시장 전망치 44만3000대를 10% 넘게 하회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가 가시화된 만큼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준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그동안의 수요 둔

화 우려가 현실화함에 따라 시장 기대치가 한층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인하 시점 지연 가능성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첫날 전기차 보조금 폐기' 발언도 부정적 전망을 확산시키는 요인"이라고 했다.

또 한국의 양극재 수출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하면서 국내 이차전자 종목들의 고평가 논란도 재점화됐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배터리당 소요량이 줄어드는 하이니켈 양극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도 한국업체들이 비중국 시장에서 경쟁사 대비 점유율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한국 양극재 업체들의 고평가 평가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버블의 영역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당장 지역 주식투자자들도 이차전자 관련주를 외

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3월 광주·전남 거래대금 상위종목'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종목은 바이오·의료 주식이었다.

지역 투자자들은 최근 1년 간 에코프로 등 이차전자 관련주를 가장 많이 사고 팔았는데, 업황 악화에 '손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코스닥 거래매수대금 1위는 간암 치료제 특허를 받아낸 HLB 주식이었다고 뒤이어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레고캠바이오 등 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반도체 업황이 되살아나면서 삼성그룹과 SK그룹의 시총은 한 달 새 크게 불어났다.

삼성그룹 22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768조7631억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71조9797억원 늘었다.

삼성전자 주가가 13.88% 급등한 데다 삼성전기(12.60%)도 크게 오른 덕분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에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증가로 연초 이후 급등세를 이어온 SK하이닉스가 지난달에도 12.91% 오르면서 SK그룹의 시총도 198조1749억원에서 215조2351억원으로 17조602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시가총액 비중(보통주·우선주 포함)은 31.96%에서 34.35%로, SK그룹의 시총 비중은 9.09%에서 9.62%로 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사고팔 주식이었다. 지역민들은 삼성전자를 총 6912억원(매수 2963억원·매도 3949억원) 거래했고, SK 하이닉스(매수 1068억원·매도 1174억원)도 세번째로 많이 거래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이자소득 상위 1%, 이자로만 한 해 1700만원 번다

전체 이자소득 중 46.5% 상위 0.1%는 7천만원 벌어

이자 소득 상위 1%인 사람들은 한 해 이자로만 171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가 거둔 이자 소득은 전체 이자소득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이자 소득 전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자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5396만9343명이었다.

이들이 거둔 이자소득은 19조8739억원이었다. 15조3160억원이었던 2021년과 비교하면 4조 5579억원 늘었다.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은 36만8000원이었다.

이자소득은 예·적금 이자, 저축성보험 차익,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의 이익, 비(비)영입대금 이익 등을 포함한다.

2022년 이자소득 상위 0.1%의 기준선은 2614만8000원이었다. 한 해 이자로 2600만원 이상을 벌어야 상위 0.1%에 든다는 의미다.

상위 0.1%의 이자소득은 총 3조8100억원으로

전체 이자소득 중 19.2%를 차지했다. 이들의 1인 평균 이자소득은 7059만원이었다.

상위 1%가 거둔 이자소득은 총 9조2339억원으로 전체 이자소득의 46.5%였다.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은 1710만원이었다.

상위 10%가 거둔 이자소득은 총 17조8256억원으로 전체의 89.7%를 차지했다.

양경숙 의원은 "이자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득 과세가 형평성 있게 이뤄질 수 있는 조세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6일까지 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 기업 모집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오는 4월 26일까지 '2024 체험형 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2024 체험형 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지역 실감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지원하고 GICON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실감콘텐츠를 개발·제작하는 전국 기업(법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정형 과제 1개, 자유형 과제 2개를 선정해 과제 당 2억 7000만원 내외를 지원한다.

지원 작품들은 오는 5월과 6월 광주실감콘텐츠 큐브(GCC)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체험형 융합 콘텐츠는 인간의 감각을 자극해 실제 경험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신기술 융합 콘텐츠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확장현실(XR)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다.

앞서 GICON은 지난 2017년부터 체험형 융합 제작 콘텐츠 지원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19개 과제를 지원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원 분야를 공연·전시 분야까지 확대해 이이만 작가, 진시영 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 사업화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가상과 현실세계를 혼합하는 등 실감콘텐츠 분야를 지속 발전시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며 "우수한 역량을 지닌 기업들이 참여해 광주지역의 미래전략 주력 산업 발전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새마을금고 2024년 사업출정식

목표 달성 결의·윤리경영 교육

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하운용)는 지난 3일 광주전남지역 새마을금고 2024년 사업출정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열린 이날 사업출정식에는 관내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실무책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2024년 사업목표

조기달성을 다짐하는 결의와 함께 새마을금고 윤리경영 교육도 병행했다.

광주전남 새마을금고는 지난 연말 결산 기준 98개 새마을금고에서 16조 1000억원의 자산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 설립 목적에 따른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주민에 대한 환원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 "이치란 라멘 이제 집에서 즐기세요"



7일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에 문을 연 '이치란 라멘' 직원이 이치란 돈코츠 라멘 밀키트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14일까지 일본 라멘 맛집으로 유명한 '이치란 라멘'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이치란 돈코츠 라멘' 밀키트 2인분 1만4900원, 5인분 3만900원, '이치란 맵기 조절 수프'를 1만3900원에 판매한다. 현장에서 이치란 한국 공식물을 알람 설정할 시 1000원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유명 코인 무료 지급 사기 성형 금감원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을 무료 또는 여기에 판매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리딩방에서 본 손실을 보상에 주겠다고 코인 매수를 제안하는 사기 수법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리딩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주식 및 로또 손실 보상에 차원에서 유명 코인을 무료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이들은 코인 무료 지급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지갑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실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사이트 화면을 조작하기도 했다.

사기범들은 화면 조작이나 허위 보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거래소에 상장된 대표 코인 등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며 추가 매수를 권유했고, 투자금을 유지한 뒤 잠적해 버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마이너스 통장 'Wa비상금' 출시

비대면 전용 소액 이용 가능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비대면 전용 소액 마이너스통장인 'Wa비상금대출'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Wa비상금대출'은 광주은행과 서울보증보험(SGI)의 협약 상품으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광주와뱅크 앱과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월급일 전 경조사 및 세금 지출 등 현금이 필요하거나 현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고객, 카드값이 예상보다 많이 청구되는 경우 신속한 이용이 가능하다.

SGI증권 발급이 가능하고 광주은행 내부 조건을 충족할 시 신청 가능하며, 최대 5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한도 대출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매년 연장할 수 있고, 별도의 수수료 없이 상시 해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4.88%(기본 연 5.38%)로, 전월 기준 광주카드(신용·체크) 실적 10만원 이상 사용 시 0.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광주은행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박문수 광주은행 데이터상품전략부장은 "간소화되는 금융시장에 맞춰 디지털 고객기반 강화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한 고객 친화적인 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비스포크 AI 콤보' 봄 맞아 '새틴 라이트베이지' 색상 출시

삼성전자는 봄을 맞아 신규 색상인 '새틴 라이트베이지'를 적용한 울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기와 건조기 기능이 하나로 합쳐진 일체형 제품으로 세탁물 이동 없이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각각 설치할 때보다 설치 공간을 약 40% 절약하며, 고효율 인버터 히트펌프 적용으로 단독 건조기 수준의 성능을 구현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향후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색상을 추가해 비스포크 AI 콤보 라인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AI 가전·삼성' 공식을 넘어 '모두를 위한 AI' 비전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로또복권 (제 1114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0	16	19	32	33	38	3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583,813,824	17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0,994,006	88
3	3개 숫자일치				1,393,193	3,221
4	4개 숫자일치				50,000	160,537
5	3개 숫자일치				5,000	2,574,463